



박태환 또 3관왕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거침없는 역영을 펼치며 국제수영연맹(FINA) 2007 경영월드컵(쇼트코스)에서 또 3관왕에 올랐다.

박태환은 15일 오전(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에릭스달 수영장에서 펼쳐진 FINA 경영월드컵 5차 시리즈 자유형 1, 500m와 200m에서 금메달 2개를 추가, 전날 자유형 400m 우승까지 합해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지난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벌어진 3차 시리즈에서 이 세 종목을 석권한 데 이어 보름여 만에 다시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자유형 1,500m에서는 자신의 기록을 크게 줄여 이번 시리즈에서 부족했던 지구력을 성공적으로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첫 경기로 펼쳐진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4번 레인을 배정받은 박태환은 0.74초의 빠른 출발 반응을 보이며 물속에 뛰어들어 14분36초42에 가장 먼저 터치페드를 두드렸다. 지난 3일 시드니에서 낸 자신의 기록 14분49초94를 무려 13초 이상 줄인 것.

이어진 여자 자유형 100m 결승을 지켜보며 5분 가량 숨을 고른 박태환은 곧바로 자유형 200m 결승에 나섰다.

0.68초로 결승 진출자 8명 가운데 가장 빠른 출발 반응을

■ 스웨덴 5차 경영월드컵

자유형 400m '금'이어

1,500m·200m 우승



보인 박태환은 역시 홀로 앞서나가며 1분43초87에 물살을 갈라 2위 피울 비더만(1분45초39, 독일)보다 1.52초나 빠른 기록으로 우승했다.

한편 박태환은 이날 자유형 1,500m에서 세운 14분36초42의 기록으로 2007~2008 시즌 세계 랭킹 2위에 올랐다.

지난 3일 시드니 3차 시리즈에서 올해 처음 1,500m를 뛰어 14분49초94에 끝인한 박태환은 7위에 처져 있었지만 이날 자신의 기록을 13초 이상 단축하면서 5계단이나 수직 상승했다.

지난 9월 호주 쇼트코스 선수권 대회에서 14분23초13으로 우승한 그랜트 해켓(호주)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박태환은 자유형 400m에서도 2위에 올라 있다. 시드니 시리즈 첫날 작성한 3분39초99의 기록은 그랜트 해켓(3분35초36·호주)에 이어 올 시즌 들어 두번째 빠른 기록이다.

3위는 3분41초36의 니컬러스 스프링거(호주)이고 유리 프릴루코프(러시아)가 3분42초20으로 4위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에서도 3위로 상위권이다. 시드니에서 낸 1분43초38의 기록은 커크 파머(1분43초12·호주), 켄릭 몽크(1분43초27·호주)에 이어 올 시즌 세번째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김경태 5언더 공동 선두

日 던롭피닉스토너먼트 1R

'슈퍼루키' 김경태(21·신한은행)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특급 대회에서 한국프로골프 상금왕의 위력을 과시했다.

김경태는 15일 일본 미야자키의 피닉스 골프장에서 열린 JGTO 던롭피닉스토너먼트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5타를 쳐 이안 폴터(잉글랜드), 무토 도시노리(일본)와 함께 공동 선두에 나섰다.

오는 28일 JGTO 웰리파이스쿨에 응시할 예정인 김경태는 첫날부터 우승 후보로 등장하면서 일본프로골프투어 선수들을 바짝 긴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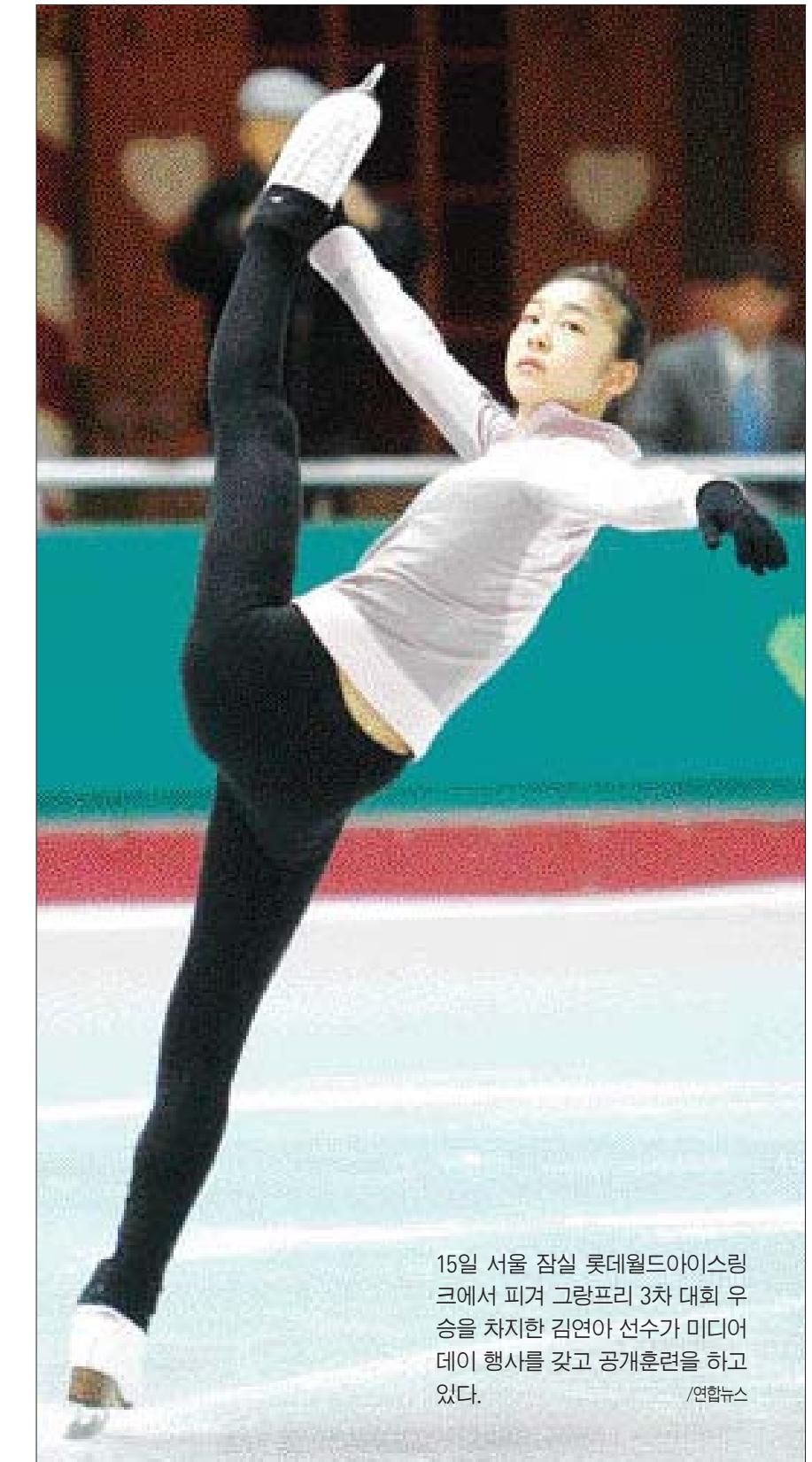
일본에서 '필드의 윤사마'로 떠오른 고고생 스타 이시카와 료(16)와 함께 10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김경태는 초반에는 그린 적응이 늦어지면서 4개홀 연속 파 행진

에 그쳤다.

그러나 14번홀(파4)에서 1.5m 버디 기회를 살린 김경태는 15번홀(파4)에서 4m 파퍼트를 집어넣으면서 상승세를 뒀다.

16번(파4), 17번(파3), 18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뽑아내며 선두로 뛰어 오른 김경태는 1번홀(파4)에서 10m 거리에서 3퍼트로 1타를 잊었지만 3번(파3), 4번(파5), 5번홀(파4)에서 또 한번 줄 버디를 엮어내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8번홀(파4)에서 그린을 놓치면서 단독 선두에서 공동 선두로 내려 앉은 것이 아쉬웠지만 2오버과 72타에 그친 이시카와에 솔깃한 눈길을 자신에게 돌려 놓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 4명 가운데 민형 격인 허석호(34)는 11번홀(파3·165야드)에서 7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훌에 빨려 들어가는 흘인원을 앞세워 3언더파 67타를 치며 공동 6위를 달렸다.



박태환 "내일 베를린서 기록 더 단축하겠다"

15일 오전(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FINA) 2007 경영월드컵 5차 시리즈에서 자신의 기록을 크게 줄인 박태환(18·경기고)이 오는 17~18일 독일 베를린에서 계속되는 6차 시리즈에서 기록 더 단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오늘 좋은 기록이나서 만족하고 베를린에서는 기록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호주 시드니에 이어 스톡홀름(13~15일), 베를린(17~18일)까지 3개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박태환의 목표는 메달이 아닌 기록 단축.

내년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1,500m와 400m 금메달이 최종 목표인 박태환은 이번 해외 원정에서 장거리 수영 필수 요건인 지구력을 보완하기 위해 실전과 훈련을 병행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

이날 박태환의 기록은 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유형 1,500m에서 박태환은 14분36초42로 끝인, 시드니 때 기록(14분49초94)보다 13초 이상을 줄였다.

박태환은 "실전이라기보다 훈련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뛰었다. 그냥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한 건데 기록이 많이 단축돼 기분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박태환은 1,500m 레이스를 펼친 뒤 곧바로 200m까지 도전해 역영을 펼치며 우승을 일궈냈다.

박태환은 "죽을 뻔 했다. 1,2분 있다가 바로 소집돼 뛰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양상을 부렸지만 이내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서 다행"이라며 웃었다.

전날 400m 결승에서 물안경에 물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입수할 때 조금 벗겨졌다. 수영선수가 물안경이 벗겨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 실수"라며 "열심히 뛰었는데 물이 들어가 당황하고 불편하니까 기록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훈련과 실전이 계속되는 데다 한국에서는 잘 시간인데 경기를 하려니까 힘들다.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고 투정도 부렸지만, 17일부터 이어지는 베를린 대회 각오를 물어 "마지막 대회이니만큼 준비를 잘해서 기록을 더 당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와~스타디움에서 열릴 바레인과 최종전에서 가려질 공산이 크다.

자칫 주축들이 경고로 바레인전에 뛸 수 없다면 선수 개인은 물론팀에도 큰 타격이다.

이번 우즈베키스탄전 심판들은 카타르와 레바논 등 중동 출신들로 이뤄졌다는 것도 한국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라운드의 여건이 예상외로 좋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도착 후 14일 밤 첫 훈련을 가진 올림픽 대표팀은 "생각보다 그라운드 사정이 좋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표팀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그라운드 여건에 무척 신경 썼다.

지난달 시리아와 4차전 원정경기에서의 부진은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현지의 거친 그라운드 때문이었다.

시리아전을 치른 경기장은 비록 잔디는 제 빛을 띠고 있었지만 지면이 울퉁불퉁해 애를 먹었는데 센트럴 아미스타디움은 그래도 바닥은 고르다고 했다.

박성화 감독은 "이번에는 우리 특유의 패스 게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즈베키스탄 원정 경기를 앞둔 박성화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옐로카드'다.

이번 원정에 나선 올림픽대표 23명 중 한 차례 경고를 안고 있는 선수는 골키퍼 정성룡(포항)과 송유걸(전남), 수비수 김창수(대전)와 신광훈(포항), 공격수 김승용(광주), 이승현(부산), 신영록, 서동현(이상 수원) 등 무려 8명이나 된다.

올림픽대표팀은 그 동안 경고 누적이나 퇴장으로 인한 출전 정지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지난 2월 예멘과 2차 예선 첫 경기(1-0 승)에서는 박주영(서울)이 일명 '배치기 반칙'으로 퇴장당하며 3경기 출전 정지의 징징계를 받았다.

경고 누적 때문에 이미 백지훈(수원)이 2차 예선 예선과 5차전(0-1 패)에, 이근호(대구)와 최철순(전북), 이승현 등 세 명은 한꺼번에 바레인과 최종예선 2차전(1-0 승)에 뛰지 못했다.

최종예선 시리아와 4차전(1-0 승), 5차전(0-0 무승부)에는 각각 오장수(울산)과 기성용(서울)이 쌓인 경고 때문에 나설 수 없었다.

팀내 주축들이 빠진 경기에서 대표팀은 늘 어려운 경기를 펼쳐야 했다.

다행이 이번 우즈베키스탄전에는 경고 누적으로 빠진 선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옐로카드를 받거

박성화호 '옐로카드' 조심하라

정성룡 등 8명 현재 한차례 경고

나 퇴장당하면 가장 중요한 바레인과 마지막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올림픽 티켓을 거머쥘 B조 1위는 결국 오는 21일 안산

"체력 받쳐주니 자신감 생겨"

'피겨요정' 김연아 훈련 공개

"체력이 받쳐주니 자신감이 저절로 생겨요."

15일 오후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피겨 그랑프리 3차 대회 우승을 차지한 김연아 선수가 미디어 데이 행사를 갖고 공개훈련을 하고 있다.

링크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3시간 동안 빙판 훈련을 치르고, 오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등 지상훈련을 통해 체력을 다지고 있다.

이날 공개훈련에서 김연아는 3차 대회에서 레벨을 낮춰 받았던 스텝 연기와 힘들었다.

김연아는 5차 대회(22~25일·모스크바) 출전하기 위해 19일 러시아로 출국 예정이다.

한편 오서 코치는 이날 공개 훈련을 마친 뒤 "5차 대회를 앞두고 스텝 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지난 3차 대회에서 선보인 연아의 스텝이 제대로 레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서 코치는 "연아와 함께 3차 대회 경기 비디오를 보면서 분석한 결과 스텝의 난도가 높았음에도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심판들이 보기에 너무 바빠(busy)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입국한 김연아는 롯데월드 아이스